

# KEPCO E&C Family

2020 05+06

**힘내라!**  
**대구·경북!**

우리 모두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각종 바이러스 질병들을 잘 이겨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도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경북으로 많은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모두 적극 동참합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 잘 이겨 냅시다.



2020 05+06  
KEPCO E&C  
Family



통권 458호 2020년 5,6월호(격월간)

발행인 이배수  
발행일 2020년 5월 1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울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메일 memolee7@kepco-enc.com

인 쇄 동아인쇄(주)(054-433-4454)

04 명사칼럼

5월에 발견하는 ‘나’와 ‘우리’의 행복

06 Brife News

한수원 사장, 김천본사 방문  
이배수 사장, 엔지니어링협회 해외개척상 수상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수소경제 선도 사업개발 협약 체결  
코로나19 확산 대비 비상대응계획 시행  
중국 원자력 회사(SNERDI)로부터 마스크 기증 받아  
한전기술서비스 설립  
루마니아 원자력 규제기관 품질 인증서 취득  
2020년 가동원전 계통설계 기술용역 수주  
국제핵융합실험로 두뇌, 중앙연동제어장치 국내서 출하  
앤스코-안동대와 지하 배관 검사장치 공동개발  
‘코로나19’로 위축된 경북 지역경제 되살리기 앞장  
코로나19 극복과 대구경북 경기회복 동참 광고 제작  
美 ‘LACP 비전 어워드’ 지속가능경영 부문 및 CSR 부문 금상 수상

10 Season View

봄날의 풍경

12 KEPCO E&C Life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14 자랑스런 한기인

인재개발교육원 이영옥 전임교수



16 팀소개

미래전략연구소 기술관리팀

18 Project of KEPCO E&C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호기 연료장전

20 가족 탐방

기계배관기술실 권오진 과장

22 퇴직을 앞두고

세월을 돌아보며 - 기계배관기술실 이창남 처장

24 직원 참여 마당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25 이달의 한컷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26 지상전시회

속곳에 숨은 선 - 김현정 작가

28 나의 취미

스쿠버 다이빙 - 장경민 사원

30 Shall We Meet?

중앙관제실 김동영 기사



32 써클 소개

스피디한 경기와 활발한 활동의 한기농구단

34 포토에세이

고난한 역사의 숨결이 담긴 순례길, 남한산성 성곽 걷기

38 맛집 탐방

내 마음에 풍경: 봄날의 보쌈

40 술익는 마을: 우리 술을 찾아갑니다

경상북도 상주의 전통민속주 - 은자골 탁배기

42 협력회사 소개

에스디이엔지

44 Culture

교양 『관자』 외

46 Safety Monent

선견지명(foresight)과 후견지명(hindsight)

47 사보기획이야기

독자와의 수다



〈李箱의 여상(女像) 中 일부〉

삼단 같은 머리에  
다홍빛 땀이 고추처럼 열렸습니다.  
물동이 물도 가만있는데  
땀기는 왜 이렇게 흔들리나요.  
꼭 귀어야지요.  
너무 대롱대롱 흔들리다가  
마음이 달뜨기 쉬웁습니다.

이 봄이 오더니...

# 5월에 발견하는 '나'와 '우리'의 행복

## 내 안의 보이지 않는 행복을 찾는데 있다



5월은 '악'하고 '나'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매우 특별한 달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소에 나 자신을 잘 알고 산다고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너나없이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헤쳐 나가기에 바빠 '나는 도대체 어떻게 태어난 인물인지',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 사람, 저 사람과 함께 호흡하며 살고 있는지', '도대체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도무지 제대로 된 행복한 삶인지' 등등을 골똘하게 생각해 본 적이 그리 많지 않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부모가 있다. 부모 없이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제자매가 있기도 한다. 자신 또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스스로 부모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가족관계가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혼, 별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 부모 자식 간에 끔직한 폭행, 살인 등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지구상에는 무려 70억 명이 넘는 수많은 인구가 산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히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 가족관계를 형성한다. 이 많은 인구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일까? 나는 무슨 연고로 저 이들을 부모님으로, 자녀로, 배우자로 만나게 되었을까? 70억분의 1이라는 가능성, 도대체 이 희귀한 가능성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나 형이상학의 설명은 다양하다. 천주교나 개신교 등 기독교에서는 하느님 또는 하나님의 섭리라 하고,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고통 받고 힘들어 하는 현실의 아픔이다. 원인은 그렇다치고 지금 이 순간 우리네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8일은 어버이날이고,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또 5일은 어린이날이고, 셋째 일요일은 성년의 날이다. 11일은 입양의 날이기도 하다. 5월은 이래저래 가족 공동체속의 '나'와 '가족의 행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매우 특별한 달이다.

5월이 가족 공동체만 생각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사람은 누구나 학교 공동체생활을 경험하는데, 그 안에서의 행복을 생각하게 한다. 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사람은 누구나 넓은 의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를 생각나게 한다.



강지원

- 1976년 사법시험 수석합격 / 사법연수원 교수
- 現 푸르메재단 이사장
- 前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위원장
- 前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



나아가서 국가공동체도 생각하게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그 임기가 시작하는 날이 5월 10일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면 그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 또한 5월 30일이다. 그런가 하면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인가, 우리는 지금 행복한 국가의 행복한 국민인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세계화 지구촌 시대, 세계 공동체도 생각해 본다. 21일은 문화다양성의 날이다. UN이 정한 세계문화다양성의 날에 맞춘 날이다. 또 20일은 재한외국인을 생각하는 세계인의 날이다. 우리로 하여금 '아, 지금 우리 지구촌 세계 인류는 행복한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자.

사람은 단 한 순간도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다. 아침에 일어나 방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세상에 오로지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천정을 갖춘 집과 온갖 살림살이부터 모두 공급자가 없으면 구할 수 없는 도구들이다. 밥한 끼도 농민 없이는 먹을 수가 없다. 오늘날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차단되면 세상은 온통 마비상태가 되고 만다. 코로나19 사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아 사람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하는 계기를 준다. 사람은 무조건 함께 살게 되어 있는 존재다. 공생(共生)의 존재이다. 공생이 아닌, 나만의 독생(獨生)은 반드시 타자에게 상처를 퍼붓는다. 또 상처는 반발을 낳고, 상처는 상처를 양산한다. 세상은 상처사회가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함께하라는 것인가? 무엇을 함께하지 않으면 상처가 양산된다는 것인가? 다름 아닌, 우리가 그토록 목매달다시피 집착해 온 성공의 대상, 예컨대 돈, 권력, 사회적 지위, 명예, 인기 등등 이른바 출세의 대상들을 함께하라는 것이다. 나만의 출세,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 출세하고 함께 성공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혹시 공산주의 아닌가? 천만의 말씀이다. 거기에는 피비린내 나는 억압과 독재가 횡행할 뿐이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확실한 자유 속에서 각자가 지나친 탐욕을 내려놓고 서로 나누고 봉사하고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무조건 많은, 눈에 보이는 돈이나 권력, 감투나 인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나에게 적절한 돈, 적절한 지위에서 나 안의 보이지 않는 행복을 찾는데 있다. 나 안에는 자신만의 타고난 달란트를 비롯해서 무궁무진한 행복의 길이 잠재되어 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참된 행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인 것이다.

나는 이번 5월에도 회개하고 반성한다. 가족 공동체, 학교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세계 공동체가 '나'와 '우리'의 행복한 공생의 길을 찾을 순 없을까, 내가 좀더 일찍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한 가지 위안을 얻는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시작하면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해서. **E&C**

# KEPCO E&C News

## 한수원 사장, 김천본사 방문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은 지난 3월 17일 김천본사를 방문, 이배수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우리회사의 경영 일반사항, 가동원전 및 해외사업에 대한 한수원과의 사업 현황, SMART 및 SMR 개발 설계 등에 관한 업무내용을 협의하였다. 아울러, 우리회사의 해외사업 진출에 필요한 시운전 실적에 대해 국내원전 건설사업 과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한 시운전 실적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시운전의 부분적 참여를 요청하였다. 회사는 앞으로도 양사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에너지전환시대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먹거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수원 사장, 김천본사 방문

## 이배수 사장, 엔지니어링협회 해외개척상 수상

이배수 사장은 지난 6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열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상 시상식’에서 UAE 원전 수출과 ITER 기자재/설계 등 해외시장 개척 역량을 인정받아 ‘2019 해외개척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회원사 및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매년 최고경영자상, 우수경영자상(건설부문/비건설부문), 해외개척상, 중소기업특별상 등으로 구분하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협회장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배수 사장, 엔지니어링협회 해외개척상 수상(대리수상)

##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수소경제 선도 사업개발 협약 체결

한국가스기술공사와 4월 10일 김천 본사에서 이배수 사장과 한국가스기술공사 고영태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기술교류 및 사업개발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기술을 교류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개발하는 목적이다. 양사는 에너지 전환시대에는 자원보다 에너지 관련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에너지기술 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기술을 선도해 에너지 기술 공기업으로서 시대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수소경제 선도 사업개발 협약 체결

## 코로나19 확산 대비 비상대응계획 시행

회사는 3월 18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심각단계가 선포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임직원들과 사육을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19일에도 엄호섭 경영관리본부장 주



코로나19 확산 대비 비상대응계획 시행

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심각단계에 대비한 도상회의 성격의 대응방안 훈련을 마쳤다. 회사의 비상대응계획은 국가 기간산업인 발전소 종합 엔지니어링 업무가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확진자 발생 시에는 업무종료(휴업)까지 시행하는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 중국 원자력 회사(SNERDI)로부터 마스크 기증 받아

COVID-19 방역 마스크를 중국 상해핵공정설계연구원(SNERDI)으로부터 기증받았다. SNERDI는 중국 원자력발전소의 연구와 설계를 하는 전문기관으로 미국 AP1000 원전 기술을 이전 받아 2018년 이후 중국 내 주력 원자로인 CAP1000, CAP1400 원전을 설계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11월 11일에 SNERDI와 상호 기술협력을 위한 CEO간 회의를 갖은 바 있다. 이후 2020년 3월에 MOU 체결을 추진 예정이었으나 COVID-19 확산으로 연기되었으며 우리 회사와 우호적 협력관계 지속을 위해 방역 마스크를 보내왔다. 회사는 이번 COVID-19 사태가 안정화되는 시기에 양사간의 MOU 체결을 통해 사업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함과 동시에 중국 내 AP1000 관련 O&M사업 진출을 모색할 계획이다.

## 한전기술서비스 설립

4월1일 간접고용근로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 일환으로 자회사인 한전기술서비스 주식회사의 설립 등기를 마쳤다. 한전기술서비스 설립은 사회 양극화 해소와 고용을 통한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 구축으로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추진하였다. 설립 자회사는 시설관리, 환경미화, 경비 및 업무용 차량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전환채용과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한다.

## 루마니아 원자력 규제기관 품질 인증서 취득

3월 18일 루마니아 원자력규제위원회(CNCAN)가 주관하는 QMS(Quality Management System) 인증 감사 수검을 통하여 품질 인증서를 취득하였다. 이번 QMS감사는 당초 현지 감사로 이루어질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여행제한조치로 3월 12과 13일 양일간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회사 품질경영시스템 및 사업품질보증체계, 엔지니어



루마니아 원자력 규제기관 품질 인증서 취득

# KEPCO E&C News

직무자격 인증 프로그램, 원자력 설계관리절차 등을 점검하였다. 이번 해외 원자력 규제 기관으로부터의 품질 인증서 취득으로 대외적으로 품질경영 및 사업 품질보증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 2020년 가동원전 계통설계 기술용역 수주

2월 27일 한국수력원자력과 “2020년 가동원전 계통설계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가동원전 계통설계기술 용역은 양자협상을 통해 체결하는 연단위 계약으로 올해는 493억원에 수주했다.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약 500억원 수준의 수주가 가능했던 것은 우리회사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신뢰와 수개월에 걸친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가동중 원전의 안전성 강화가 국민의 시대적 요구임을 직시하여 안전성과 품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국민의 높아진 원전안전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국민신뢰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후쿠시마 사고 및 경주지진 이후 강화되고 있는 규제요건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안전성 증진사업들을 개발하여 가동원전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 국제핵융합실험로 두뇌, 중앙연동제어장치 국내서 출하

우리회사와 국가핵융합연구소(소장 유석재) 컨소시엄은 3월 6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모비스(mobis, 대표이사 김지현)에서 프랑스 까다라쉬에 건설 중인 ITER(국제핵융합실험로)의 중앙연동제어장치(CIS, Central Interlock System) 최종 공급분에 대한 출하식을 가졌다. 중앙연동제어장치는 ITER 장치 가동 시 인간의 몸속 신경계를 제어하는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로 ITER 주제어 건물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중앙연동제어장치에 대해서는 국제표준(IEC) 및 ITER 국제기구의 기준을 적용한 내진성능시험, CE인증, 전자파적합성시험 등에 대한 회사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바탕으로 ITER 국제기구의 엄격한 품질 검증 절차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앤스코-안동대와 지하 배관 검사장치 공동개발

앤스코, 안동대학교와 공동으로 지하에 매설된 배관의 파손, 균열, 부식 결함을 굴착작업 없이 지상에서 정확히 탐지하는 검사장치를 개발하여 현장검증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회사는 해당 장치개발이 발전소 매설배관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



국제핵융합실험로 두뇌, 중앙연동제어장치 국내서 출하



앤스코-안동대와 지하 배관 검사장치 공동개발



코로나19 극복과 대구경북 경기회복 동참 광고 시행



美 'LACP 비전 어워드' 지속가능경영 부문 및 CSR 부문 금상 수상

는 상하수도관, 가스관, 화학물 수송배관의 결함을 탐지하는 데에도 폭넓게 활용되어 산업연관 효과가 크며, 사회기반시설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코로나19’로 위축된 경북 지역경제 되살리기 앞장

3월 5일 위축된 경북 지역경제 되살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종합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김천지역을 중심으로 대구 경북 지역사회에 △기부금 기탁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사회 방역지원 △자발적 헌혈과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안으로 지역경제 되살리기를 추진한다. 아울러 침체되어 가는 지역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관내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 효율화를 목적으로 스마트혁신 분야의 에너지 신산업과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극복과 대구경북 경기회복 동참 광고 시행

대구경북지역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대구경북지역 경기 되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는 뜻으로 신규 광고를 제작하여 집행한다. 이번에 제작된 광고시안은 ‘힘내라! 대구경북!’과 대구경북 지역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감사합니다!’ 등 코로나 19 위기극복 광고 2편과 대구경북 지역경제 되살리기에 동참을 호소하는 ‘힘내라! 대구경북! 되살리자! 지역경제!’ 광고 1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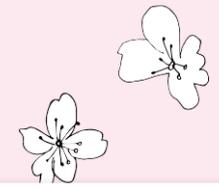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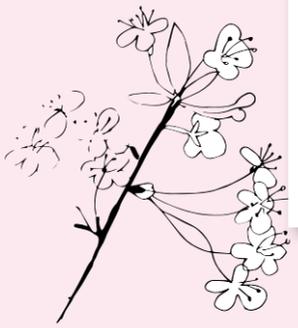
### 美 ‘LACP 비전 어워드’ 지속가능경영 부문 및 CSR 부문 금상 수상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이 주관하는 ‘LACP 2018/19 비전 어워드’에서 지속가능경영 부문과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부문 금상을 수상하였다. 회사가 출품한 2018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총 8개 평가항목 중 첫인상 · 표지디자인 · 최고 경영자 메시지 · 내용구성 · 재무보고 · 메시지 정확성 등 6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높은 완성도를 입증받았으며, 모든 평가 부문을 망라한 ‘Top 100 Reports Worldwide’에서도 44위에 선정되었다. 앞으로도 회사는 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최고의 기술로 고객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할 예정이다. E&C



# 봄날의 풍경

70년대 배터리를 등에 동여 맨 라디오에서 “꽃이 피고요 새가 울면은 두고두고 그리운 사람”이란 노래가 흘러나왔다.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요만은 그래도 불러보았자 그 시절은 돌아오지 않는다. 누군가 웃으면서 목련을 팝콘나무라 했다. 한밤에 피어난 백목련, 자목련은 팍 벌어진 꽃잎이 소쿠리에 담고 싶을 만큼 소담스럽다. 컴컴한 산중에서 보면 귀등(鬼燈)처럼 어슴푸레 무리를 발산한다. 남녘의 매화, 벚꽃 놀이가 한창일 지금 무렵이면 전국 고속도로가 확 막힐 정도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폐쇄되었다. 요즘 유채꽃밭도 갈아엎는 판에 언감생심이다. 하지만 봄꽃은 여지없이 피어나고 사람들 마음은 싱숭생숭 흔들린다. 봄소식을 전하고자 여기저기 주변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김천 과수원에는 흰 자두꽃이 햇살을 받아 재재거린다. 영남대로 길가에 벚꽃이 만개하였다. 이런 봄날에 알뜰한 당신이 무슨 까닭에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가고 알뜰은 옛노래에 기대어 잠시나마 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E&C





#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44기 전기분야 신입으로 입사한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에너지신사업본부 전기계측기술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동안 취업 준비하면서 고생한 44기 동기 여러분께 축하의 말, 그리고 저를 뽑아주신 임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수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짧고도 길었던 제 취업준비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학부시절, 한 교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학부연구생이 되어 교수님의 배려와 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수님이 강의하셨던 전력공학, 전력시스템경제, 전력발생공학 등 이런 강의들에 대한 흥미로 이어졌습니다. 전력그룹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 교수님 밑에서 많은 조언을 얻게 되었고 에너지공기업에 입사하고자 하는 꿈을 키웠습니다.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생명줄인 전력을 공급하는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류전형을 통과하겠다는 생각에 필요한 자격증을 준비하였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반드시 에너지공기업에 입사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에 몸을 혹사시켰는지 갑자기 건강에 이상신호가 찾아왔습니다.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고 한달 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동안 입원생활로 고생한 후 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짧은 시간 집중해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다양한 취미와 여가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였습니다. 하루하루 그날의 목표량을 달성해 나가면서 목표치도 조금씩 높여가고 높은 집중도를 바탕으로 건강을 챙기며 효율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2018년 채용이 시작될 무렵 아직 자격증과 같은 스펙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서류전형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을 비롯하여 지원한 모든 곳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좌절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제 스스로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이번 한 번으로 기회가 끝난 것도 아니며 무엇을 준비할지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회는 꼭 붙잡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2019년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필요한 자격증을 비롯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습

니다. 평소 노력을 통해 필기시험 통과에도 자신에 차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만했던 것일까요.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했던 다른 전력그룹사의 최종면접까지 여러 번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잠들기 직전에도, 샤워 할 때에도, 식사 할 때에도 면접 질문에 답을 잘못된 것이 떠오르고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시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발이 남았습니다. 저는 때마침 한국전력기술에서 서류에서 예비후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보지 못하더라도 시험장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험은 지금까지 본 회사들 중에서 가장 어려웠으며 문제를 푸는데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채용인원이 소수여서 정말 실력 있는 인재들만 선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덜컥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면접까지도 순탄히 잘 해내었습니다. 대망의 합격자 발표일! PC방에서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고 '내 아이디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여러 번 반복하고서야 합격을 실감하고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합격 발표 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입사한지 1개월 조금 지났는데, 아직도 얼떨떨하고 만약 떨어졌으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44기 동기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C**

인재개발교육원  
**이영옥**  
전임교수

한 인간의 생애를 지층으로  
비유할 때 한 단면을 잘라 그이의  
삶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  
이영옥 교수와 인터뷰 도중 걸려온  
전화를 엿듣다가 대화에서 들리는  
단어를 수첩에 적어보았다.  
“부품등급, Seismic category II,  
영구적 변형, 하중과 구조,  
장착보호, 볼트의 건전성,  
스트레스, 주변 기기에 충격을  
줄 가능성.....” 그 순간 볼트홈과 나  
사산의 체결력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수많은 볼트와 나사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자동차,  
빌딩, 발전소의 그림들. 여기에  
내진검증에 따르는 안전성,  
구조적 건전성, 운전성이라는  
베타 요소를 첨가해 본다.



한창 코로나 비상사태로 마스크를 쓴 얼굴의 이모저모는 알 수 없었지만 또렷한 눈  
빛만은 살아있었다. 겸손모드 없이 자신을 정의한다면 ‘어떻게’라는 직입적 질문에  
이 교수는 “내진검증이란 단어로 네이버나 국회도서관 자료를 검색하면 제 이름이  
함께 나와요.” 망설임 없는 답변이다. 여자로서 둔중하게 느껴지는 기계공학을 전  
공한 사연을 물었다. “본래부터 무언가 알고자 하는 욕구, 탐구 열의가 있었어요.”  
미루어 보건대 수학과 과학을 잘하셨구나! 짐작해 본다.

이영옥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내진과 밀접한 학문은 진동학으로 주로 기계설계공  
학과 기계공학은 펌프, 배관, 기기의 역학과 특성을, 토목공학에서 다루는 내진은  
기계보다 건물을 토대로 한다. 또 기기검증은 내진과 내환경으로 구별하는데 내환

경 분야는 냉각재손실사고(LOCA)시 온도, 압력의 환경 조건  
하에서의 기기의 안전성을 다룬다. 말씀 도중 지진가속도나  
10의 마이너스 몇 승 같은 수치도 나왔지만 문외한으로 감이  
없었다. 다만 안전코드 관련으로 근무 초반기에 미국 IEEE와  
유럽의 IEC간의 내진검증 기준을 비교분석, 대비하는 꼼꼼한  
작업에 공을 들였다고 한다.

복잡한 공학적 분류학은 이만 생략하고 근무 중 가장 힘든  
시기는 원전비리 사태가 터지고 전수조사 이야기까지 나온  
시점에서 대략 3년간 격무에 시달렸다. 그기간 온갖 질의와  
조사, 답변에 매달렸는데 홀로 용인사옥 사무실에 남아 새벽  
3시~4시까지 불 밝혔을 때 경비원분들이 걱정이 되어 매시  
간 확인차 오셨다고 웃으면서 말한다. 듣는 이의 입장에서 스  
트레스가 대단했을 터인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물었더니,  
“사람이 집중해서 몰입단계에 이르면 스트레스조차 의식하  
지 못합니다.”라는 의외의 답변에 놀랐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도 내진전문가로 참여한 이력  
이 있지만 이외에도 이 교수가 언급한 학회와 단체가 적지 않  
았다. 나열하면 공조설비학회, 사용후핵연료 전문가검토그  
룹, 핵융합실무위원,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여성원자력전  
문인협회 등. 대외활동의 참여도 참 왕성한 듯 보였다.

선장의 마음(Captain's mind)이란 표현이 있다. 선장이 가  
슴에 새겨야 할 윤리의식도 있지만 공학자의 판단(Engi-  
neer's judgement)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에 관해 이 교  
수의 의견은 “저는 엄정한 공학자 입장에서 ‘잘못 된 것은 잘  
못되었다.’라고 밝히는 입장을 취합니다. 회사에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 검토에서 간과한 점이 보  
이면 바로 잘못을 인정합니다. 단, 그에 관한 대안 또는 해법  
(solution)을 함께 냅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KINS)에서도 내진전문가로 이영옥 교수를 인정하구  
나 고개가 끄덕여졌다.



이제 연륜이 쌓여 이 교수도 최고참 엔지니어 그룹에 속한  
다. 직원 간에도 경험전수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교수 말을  
빌어본다. “원자력 기술이전 시대에는 우리들이 잘 모른다  
고 스스로 느껴, 배워 보려는 학습욕이 강했습니다. 모두가  
개척자 역할을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기술사안을 보다 폭  
넓고 깊게 파고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많은 시간을 공부와  
토론에 할애했지요. 요즘은 선행 프로젝트의 레퍼런스에 의  
존하여 현재의 당면한 업무에만 신경 쓰는 일이 늘었습니  
다. 지나간 시대의 기준을 현재에 요구할 수 없지만 농밀한  
업무집중도로 이를 커버해야 합니다. 저는 젊은 엔지니어의  
배우려는 열정을 봅니다. 앞으로 기업문화로서 이를 살려 나  
가야겠지요.”

이영옥 교수의 인생 좌우명은 이렇다. “10년 후 이 시간, 이  
결정을 후회하지 말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  
자신이 세운 원칙에 충실하고, 소명의식을 미래 시간과 공  
간에도 펼쳐보며 현재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아  
왔다는 뜻은 아닐까. 사내에서 원전기기간전센터장을 5년간  
하셨고 토목쟁이 남편(우리 회사에 근무하신 경력 있음. 현  
재 개인 사업)과 함께, 슬하에 아들 둘을 두셨다. ‘학구적 연  
구+대외활동+가정봉양’의 3박자에 더하여 담대한 성품을  
가졌다. E&C



# 미래전략연구소 기술관리팀

기술관리팀은 우리 회사 고유기술 보존과 향상을 위해 특허 및 지식재산권, 학·협회 학술활동 운영, 기술자 경력관리, 회사 표준설계관리절차서/표준기술문서 및 지식경영시스템 운영 등 회사 고유기술 보호, 핵심기술의 축적·공유 및 기술관리 체계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더불어 연구개발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래전략연구소의 정부 및 자체과제 행정업무와 기술관리 총괄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조성훈 팀장**  
하얀 눈썹(일명 산신령)을 가진 카리스마 캡틴으로 회사에서 근무할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며 업무 열정이 남다르다. 족집게처럼 업무요류를 찾아내 팀원들의 실수를 최소화 시키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얀 눈썹이 움직일 때 남다른 유머감을 발휘하는, 팀원들을 살뜰히 챙기시는 멋진 분이다.



**이장배 부장**  
농사, 낚시, 등산 등 자연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자연인 그대로이다. 분양받은 풍산개[여백이(암), 태백이(수)]를 보살피기 위해 근무 시간 변경도 마다않는 진정한 반려인자, 특허 및 지식재산권 업무를 능숙 능란하게 처리하는 우리 팀의 터줏대감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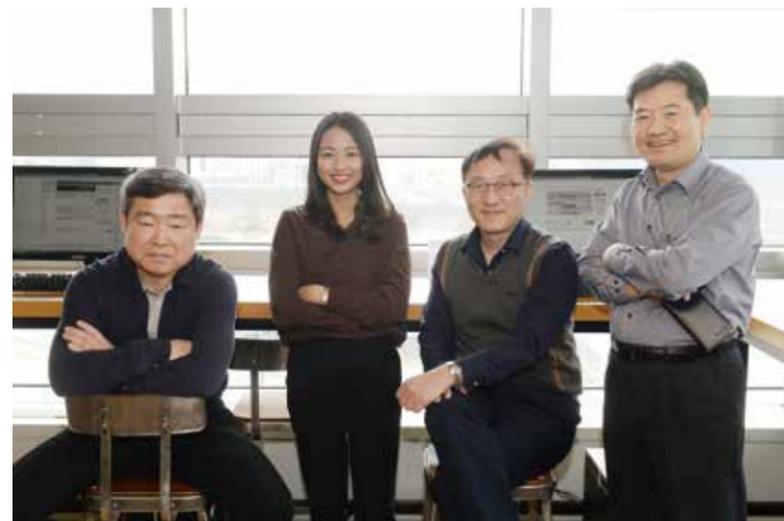
**전영규 부장**  
누구나 마음 편히 다가갈 수 있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일명 '샤이닝 J'로 불린다. 기타 연주를 즐기며 다양한 문화생활에 관심이 많은 문화인이기도 하다. 연구소 정부/자체과제 및 연구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책임자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한다.



**이오성 부장**  
일명 '촌데레 장군' 스타일로 진지하고 차가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소년 같은 웃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분이다. 학·협회 학술활동 운영 및 기술자 경력관리 업무를 하며 기술자들이 잘 챙길 수 없는 경력을 꼼꼼히 챙기는 똑심 장군이기도 하다.



**윤창준 부장**  
과묵한 경상도 사나이와 다정한 서울 사나이의 중간 느낌을 가진 분이다. 얼굴 표정의 변화가 극히 드문 야구에 특히 관심이 많은 스포츠맨이다. 연구소 정부/자체과제 자문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선화 차장**  
이름의 끝자 "和(화합할 화)" 같이 팀의 화합을 중요하게 여기며, 친근한 모습으로 팀 분위기를 잘 이끄는 분위기 메이커이다. 연구소 신고 및 인사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다양한 업무를 통한 노하우로 부서, 팀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



**김경태 차장**  
가늘어 보이는 토이 스토리 우디를 닮은 모습이지만 '한기 플랭크'라는 맨몸운동 동호회 회장으로 점심시간마다 운동하며,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 회사 표준설계 관리절차서, 표준기술문서, 스페셜리스트, EPRI CoP 및 스테디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타 부서와 업무협조를 잘 이끌어낸다.



**강정현 사원**  
예의바르고 단아한 성격을 가진 강정현 사원은 건강식품, 아재개그, 주기적인 요깃거리를 추구하는 막내 같지 않은 막내이다. 웃음이 매력적이고 자주 대화하고픈 사원으로 연구소 정부, 자체과제 행정 및 연구지원 업무 등 많은 일을 척척 해내는 믿음직한 막내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렇게 다재다능, 적재적소의 다양한 직원이 어울려져 회사의 기술관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기술-지식-자격-특허-표준 관련 업무라면 맡겨주시기 바란다. **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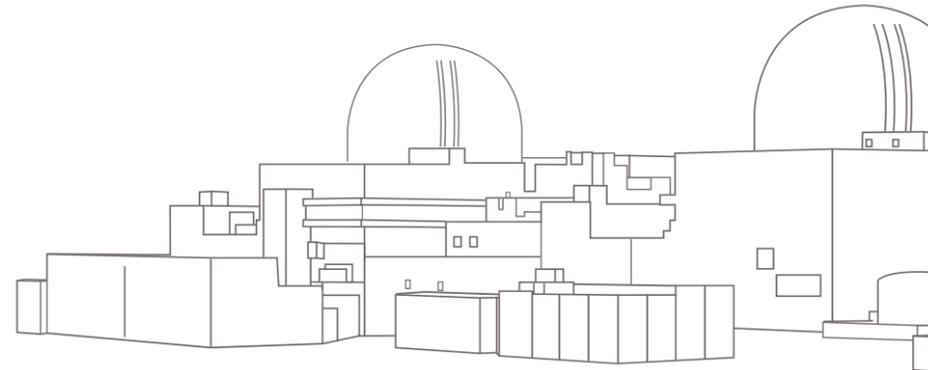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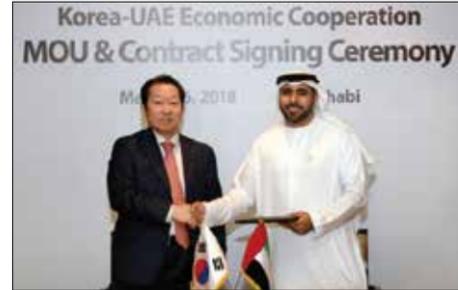


Photo provided by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사진제공: UAE 원자력공사(ENEC)

## 한전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다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호기 연료장전

UAE 원자력공사(ENEC)와 우리 회사의 합작투자자로 설립된 UAE 원전 운영사인 나와 에너지 컴퍼니(Nawah Energy Company)가 2020년 2월에 우리나라 첫 수출 원전 아랍 에미리트(UAE) 바라카 1호기(이하 BNPP 1호기)의 운영 허가를 취득하고 2020년 3월에 연료장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본격 가동을 위한 최종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

다음 단계로 BNPP 1호기를 가동하고 이후 수 개월 동안 안전하고 일정한 출력상승시험을 거친 후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현재 2호기가 완공되었으며, 3호기와 4호기는 건설 마지막 단계에 있고 시운전 중이다. 이 두 원전의 전체 완공률은 94%이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가정이나 사무실, 공장 그리고 사회 곳곳 기반시설 등에 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발전소를 개발하여 최종적으로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하는 단계를 ‘상업운전(Commercial Operation)’ 이라고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장전(Fuel Load)은 상업운전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큰 의미를 지닌다. 연료장전을 위해서는 ‘운영 허가\*(Operating License)’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 시설의 최종 설계가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설계수명기간 동안 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정성과 건전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BNPP 1호기는 연료장전에 앞서 설비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압력보다 1.25배 높은 압력을 가하여 설비의 견고성을 확인하는 상온수압시험(CHT: Cold Hydrostatic Test)과 원자로냉각재펌프를 운전해 여기서 발생하

는 마찰열로 원자로냉각재의 온도를 고온상태까지 만들어 모든 계통과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고온 기능시험(HFT: Hot Functional Test)을 통과하였다.

하지만 ‘운영허가’ 취득에 이르는 길에는 포괄적인 절차가 필요하였다. BNPP 건설에는 참조발전소(신고리 3, 4호기)에 사용된 최신 기술을 적용하였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규제기관들이 안전기준과 규제요건을 강화 및 증대하였다. 그래서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비를 건설 도중에 보강하여야 했다. 또한 우리 기술자들은 국내와 다른 부지 특성(국내와 다른 전력계통 주파수, 해수온도 및 대기온도, 모래폭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와 씨름하며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 숙련된 기술자들의 노하우 및 설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ENEC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다양한 규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를 통해 최고의 품질로 BNPP 건설을 안전하게 완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우리 회사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성을 바탕으로 BNPP 건설완료 후 10년 간 독점적으로 기술서비스를 제공

하는 장기가동원전사험(LTEA: Long Term Engineering Agreement)을 수주할 수 있었다.

원자력 발전소 수출은 산업계에서 광범위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며,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설계수명기간 동안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요구되는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에 적절히 대응하고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계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숙련된 기술자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건설 이후에도 수많은 부수적인 이익이 발생한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4개 호기의 순차적 상업운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냄으로써 보유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향후 경험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사업주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요 기술현안 해결 및 현장 지원에 힘써 온 우리 회사가 앞으로도 앞선 기술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계속해서 선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ENEC**

**\*운영허가(Operating License)**  
최종안정성분석,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 심사결과와 사용전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규제당국으로부터 허가받아야 하는 제도.





# 5월 가정의 달, 4형제 다둥이 아빠 인터뷰

## 기계배관기술실 권오진 과장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 3054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더욱이 올해 출생아 수는 이보다 더 줄어들어 30만명 선의 붕괴가 확실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 40만 선이 무너진 이래 이제는 20만명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호에서는 이처럼 저출산이 가속화되어 가는 시대에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기 가족을 만나, 특별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주목할 점은 보통의 다자녀 가정이 아닌, 아들만 넷을 둔 보기 드문 케이스의 다자녀 가정이란 것이다.

**Q. 가족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희 가족은 축구를 좋아하는 첫째 혁태(11살), 인정이 많은 둘째 혁진이(9살), 먹성 좋고 씩씩한 셋째 혁찬이(5살), 귀염둥이 막내 혁주(3살),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이렇게 여섯 식구 다둥이 가족입니다.

**Q. 다자녀 가정을 이루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A.** 특별한 계기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그저 신혼 초에 아이가 셋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해 보긴 했는데, 어쩌다 보니 네 명이나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네요.

**Q. 아이 한 명 돌보는 것도 힘든데, 넷은 어떠신가요?**

**A.** 상상하시는 것 보다 10배 정도 더 힘들 겁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말 쉴 틈 없는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을 만큼 극한(?)의 육아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옛것만 태어난 것만 같았던 막내 아이가 두 돌도 더 지났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은 막내가 새벽에 깨서 우는 일도 드물고, 형제들끼리도 잘 어울려 노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 듯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막내를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기 때문에 육아부담을 좀 더 덜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Q. 막내까지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무엇을 가장 해보고 싶으신가요?**

**A.** 아이들 때 놓고 아내와 둘이서만 느긋하게 식사도 해 보고, 차도 마시면서 여유를 좀 만끽해보고 싶습니다. 10여 년 동안 육아가 지속되다 보니, 아내와 둘이서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도 가물가물 하네요. 어딜 가든지 최소한 아이 하나, 둘은 데리고 다녀야했으니 식당을 가도 아이들 먹이고 돌보기에만 바빴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도 서로 챙겨주고, 그간 못 다한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자녀가 많아서 경제적 부담도 크실 텐데요?**

**A.**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지 생각하시는 것만큼 가게 지출이 크진 않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거라고 한다면, 식비가 아닐까 합니다. 아이들 먹성이 날이 갈수록 왕성해지다보니, 먹을거리 사다놓기가 무섭게 사라 집니다. 세 살짜리 막내아이 마저도 입버릇처럼 ‘엄마, 맛있는 거!’하면서 쫓아다닐 정도니까요. 그래도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주는 아이들에게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부담스런 답변만 유도를 한 것 같아 출산기피 특집이 될 것 같네요, 이쯤에서 분위기를 좀 바꿔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아이가 많아서 좋은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A.** 맞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장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무

엇보다도 아이가 태어나 점차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순간순간의 즐거움과 감동만으로도 가슴 벅찰 때가 많죠. 또 하루하루 늘어나는 사진과 에피소드 만큼이나 추억도 쌓여가고요. 저는 이런 기쁨을 네 배나 누릴 수 있으니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많다보니 서로 싸우기도 많이 하지만 그 속에서 저희들끼리 자연스럽게 양보나 배려도 알아가고, 사회성도 터득하는 것 같아 뿌듯할 때도 많고요. 게다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자녀 혜택도 누릴 수 있으니 이걸 덤이고요.

**Q. 육아에 대한 소회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A.** 아내가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이 참 많습니다. 저야 회사에 가면 차라도 마시고 정해진 때 에 식사시간도 가질 수 있는데, 육아에는 휴식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밝고 씩씩하게 가족들 옆을 지켜주고 있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첫째와 둘째에게도 ‘너희들이 동생들과 잘 놀아주고 챙겨주는 덕분에, 엄마, 아빠가 큰 힘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Q. 끝으로, 다섯째 한명 더 낳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A.** 더 이상 출생신고 할 일은 없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자 저 마다 다양한 표정과 포즈를 취합니다. 4형제를 키우는 게 보통일은 아닐 테지만, 이만큼 값진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EBC**



# 세월을 돌아보며



서른 살 입사 당시에는 회갑까지 한 회사를 다니리라 생각 못했다. 회사는 일정 기간마다 장소를 옮기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니고 버텼다.

31년간 '한기'에서 제공하는 급여(외벌이)만으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집을 짓고, 가꾸고 그리고 나도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다. 이런 내가 정년퇴직을 목전에 두고 편하고 느린 마음으로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이 보다 더 큰 복이 있겠는가. 그저 감사하는 마음뿐이다.

우리네 삶은 그다지 길지 않다. 그렇다고 짧은 것도 아니다. 세상은 여전히 놀라운 것들과 놀라운 사람들로 가득 차있다. 짧지 않은 은퇴 후 삶 속에서 그런 세상을 탐험해 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

렌다. 회사에서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남에게 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지만, 그간 실천했던 몇 가지를 후배들에게 이야기 해 주고 싶다.

## 첫째는 하는 일과 관련된 주요 숫자들을 '기억하는 것을 습관화하라'

40년 동안 축적된 한기의 많은 설계 자료는 몇 번 클릭으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자료에 접근 할 수 없는 회의 상황 등에는 이러한 정보들을 기억에 의존하게 된다. 만일 업무 중 자연스럽게 취득되는 정보(특히 숫자)외에, 예를 들어, 200개 정도를 더 기억한다면 얼마나 유용 할까를 생각해 보라! 특히 숫자로 되어 있는 자료는 시간을 내어서라도 외우고, 외우는 것을 습관화하기를 추천한다. 이런 숫자들은 새로운 대상을 상대로 엔지니어링을 할 때 바로

31년간 '한기'에서 제공하는 급여(외벌이)만으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집을 짓고, 가꾸고 그리고 나도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다. 이런 내가 정년퇴직을 목전에 두고 편하고 느린 마음으로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이 보다 더 큰 복이 있겠는가. 그저 감사하는 마음뿐이다.

미터(Barometer)와 같고 자(Ruler)와 같은 역할을 한다. 기억된 숫자들은 실수를 줄여 주고 회의 중 이런 숫자가 인용될 때는 한층 더 전문가답게 보이게 하여 상대방에게 깊은 신뢰를 줄 수 있다.

## 두 번째는 '프로가 되기를 노력하고, 안되면 연기를 해서라도 프로가 되라'

자기 전공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궁금해 하고 공부를 하라. 그렇게 하여 타 회사, 타 부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 간다면 사람들은 나를 전문가라고 인식해 간다. 만일 공부가 덜 되었거든 회의 직전이라도 유용할 자료들을 정리하고 외우라. 그리하여 상대로 하여금 그 정도 정보는 이미 숙지하고 있었다는 착각이라도 들게 하라.

## 세 번째는 '전공 외의 화제를 2시간 이상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내공을 길러라'

그림, 시와 소설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악보를 어떻게 읽는지 궁금해 해야 하고, 최소한 몰두 할 수 있는 운동 한 가지는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 이 많은 것을 하려면 시간이 모자란다. 퇴근 후 술도 마셔야 하고, 게임도 해야 하고, 아침엔 늦잠도 자야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TV 뉴스도 시간 마다 봐야하고, 다음날이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다양한 유튜브도 즐겨야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불금을 즐겨야 제 맛이고, 토요일은 브런치를 먹어야 하니 11시까지 자야하고, 일요일은 하루는 쉬어야 하는 날이니 뇌를 비우고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책을 읽을 수만 있다면 전공 외의 주제에 대하여 최소 2시간을 말할 수 있는 내공이 그윽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 부지런하자.

## 네 번째는 '스트레스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스트레스는 여러분을 어떤 일에도 한 단계 올려놓을 수 있는 큰 원동력을 명심하라. 취미 생활을 한다 해도 일정 정도의 스트레스를 견뎌야 한다. 배우던 시절을 생각해 보라. 시험을 치르는 스트레스를 견뎌내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학문적 지식의 분량이 얼마나 될까!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한 단계 올리는 계기로 삼아라.

퇴직 후 계획이라면 나를 불러 주는 곳이 있다면 가진 경험과 지식을 최선을 다해 전해주고 싶다. 그러나 다시 생업을 갖는다는 것은 조금은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몇 년 전부터 아내한테 해오던 말을 이행하라고 조르고 싶다. '내가 30년을 감당했으니, 이제부터는 당신 차례라고.'

그리고선, 여느 때와 같이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할 일 없이 정원을 거닐다 잡초를 뽑고, 나뭇가지를 자르고 하루 밤새에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가늠해 보고 싶다. 아무 바쁠 것도 없는 다급한 아내의 아침 식사 하라는 소리를 듣고 들어가 식사를 하고 게으른 오전을 맞고 싶다.

독서용 의자에 문혀 책을 읽다가 졸리면 책을 끌어안고 그대로 자고 싶다. 밤에 불면증이 온다 해도 상관없다. 내일 아침에 회의도 없고 출장 갈 일도 없으니 점심을 넘기며 잔들 무슨 대수랴. 잠을 깨면 아내 없는 점심을 느릿한 속도로 스스로 만들어 먹고 싶다. 점심을 먹고는 운동을 해야지. 50년이 넘게 계속해온 조깅을 해야 겠지. 퇴직 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 이니까.

그리고 세상을 탐험하러 나가야 겠지. **E&C**



#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문성빈 신기계배관환경기술실 대리 / 16년 6월 삼성 갤럭시 S7엣지

이 사진은 오스트리아의 잘츠카머гут지방의 할슈타트라는 작은 마을을 여행하면서 촬영하였다.  
 할슈타트 마을 전경이 호수에 비친 모습에 매료된 채 한동안 발걸음을 멈춰서서 사진속의 풍경을 두고  
 수차례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고요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풍경이었고,  
 동화속 마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던 장소였다.

예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익숙한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삶의 풍경이 갑작스레 바뀌고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다. COVID-19라는 공식명칭이 방송언론을 장악하고 세상을 흔들었다. 사진촬영은 2월 26일 본관1층 출입구이다.  
 아직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을 강타하기 이전, 어쩌면 이제 캄캄한 터널의 입구를 들어섰는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기이다. 푸른색 Eider 외투를 입고 왼손에는 출입증, 오른손에는 비닐봉지를 쥔 채 출입구를 막 통과하는 그의 얼굴이 앵글에 포착되었다. 눈은 어디를 응시하고 있을까? 그리고 코로나는 팬데믹이 되고 엄청난 경제적 후유증에 세상이 시달릴지 그는 알기라도 할까?  
 “그때 카파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에 나오는 사진처럼 피사체가 흔들리고 급박하게 움직이는 역동선이 잡혔다면 긴장감 도는 그날의 순간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었을 테인데. 갑자기 바뀐 출근 풍경에서 조금 겸연쩍은 미소를 띄우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사진 속 주인공을 아시는 분은 memolee7@kepco-enc.com으로 5월 25일까지 메일 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다섯분께 커피 쿠폰(일만원)을 제공합니다.



너를 통해 위로 받는다



일상탈출

# 속곳에 숨은 선

- 김현정 작가



김현정의 한국화에는 의례 위트, 재미, 콜라주, 내숭이란 수식어가 붙는다. 일견 엄숙고상하거나 순수와 거리가 멀다는 걸 눈치 챈다. 그 대신 발랄하고 경쾌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미술이 꼭 화랑이나 박물관에만 전시되어야 하나? 그림 속 인간이 화폭에서 걸어 나와 현재의 일상을 호흡하면 안 되는가? 그런 대중과의 접면을 원하는 전략 중 하나가 치마나 고쟁이 속에 숨겨진 여자의 나선을 보일 듯 말 듯 드러내는 은근슬쩍 시도이다. '몽크의 절규' 같은 유명 그림들을 변위(갈아 끼우기)하는 그림들만 보다가 작품 '몰입'을 보는 순간 선과 색을 포착하고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았다. 문제는 수법은 들통 나면 곧 식상해져 통속의 함정(vulgarism)으로 빠져들기 쉽다. 화가가 앞으로 창조적 파괴로서 얼마큼 한국화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갈지 기대되는 젊은 화가이다. 사보편집팀에서 어려운 섭외과정을 거쳐 작품 몇 점을 모셔왔다.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던 곳이 아닌가



천지창조



신부수업



육아전쟁

# 스쿠버 다이빙

최근 가장 떨리는 순간이 스쿠버 다이빙과 만남이었다. 20살 때부터 버킷리스트에 한자리를 차지하던 것 중 하나! 평소 여행을 좋아하고 익사iting 스포츠를 사랑하던 나에게 혼자 여행하는 멋진 기회가 주어졌다. 이곳 저곳을 고민하던 중 나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인이 “넌 운동 좋아하니 필리핀 가서 스쿠버 배워 보는 건 어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와우~ 이거야” 소리치며 바로 필리핀 세부 항공권을 예매하였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필리핀은 처음이었고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세부에 늦은 밤 도착하였다. 생각보다 필리핀은 여행하기 위험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현지인들은 웃으며 친절하게 다가와 주었다. 뉴그랑 블루 리조트에서 오픈워터 첫날 수업은 수중환경, 다이빙장비, 다이빙기술 수업이 오전 내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론수업 내용은 머릿속 지우개처럼 물속으로 들어갈 걱정과 흥분으로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이론수업이 끝난 후 수영장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기술을 배우고 리조트 앞 하우스리프트로 작은 보트를 타고 이동하여 바다로 입수하였다.

지금도 바다를 향한 나의 첫 입수 느낌과 그 짜릿함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평소 물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바다가 무섭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 나에게 스쿠버 다이빙이란?

새로운 도전이고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 더 빠져드는 끝도 없는 치명적 매력을 가졌다. 또한 나이, 성별, 직업, 불문하고 다이빙을 하며 만난 사람들은 다양하며 오직 “다이빙”이란 공통주제로만 밤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점이 좋다. 무엇보다 바다 속 한가운데에서 보글보글 나의 호흡으로 인한 공기버블과 소리는 오직 나만의 집중 시간을 부여해 물속에서 만난 사람들과 공감을 나누는 취미로서 이보다 더 훌륭한 취미는 없을 듯하다.



지 않았지만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타국에서 20kg이상 되는 스쿠버 장비는 세상의 무게만큼 무거웠고 힘들었다. 둘 째 날은 전날보다 스쿠버 장비에 더 잘 적응하였으며 어디에선가 이유모를 여유도 생겼다. 바다가 친근해졌으며 수중의 지형도 둘러보고 지나가는 물고기도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짧았던 1박2일 오픈워터 코스를 마치고 다이빙의 아쉬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을 때 세부에서 일정이 남아있었던 터라 현지강사의 권유로 다음 코스를 신청하였다. 이미 배운 다이빙 스킬을 기초로 물속에서 더욱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어디에서나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어드밴스드 어드벤처 다이버 코스를 이수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꿈만 같았던 세부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늦은 30대에 그것도



여자 혼자 호기심으로 도전한 스쿠버다이빙은 처음 느껴본 수심의 압력은 신세계로 나를 데려갔다. 그 이후 구조 다이브 레스큐, 다이브 마스터, 강사교육까지 이수하였다.

다이빙 매력에 빠져 시간이 날 때마다 세부를 방문하여 다이빙을 즐겼으며 황제 다이빙의 천국 필리핀에서 다이빙 투어로 멋진 시간을 보냈다. 세부 막탄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보홀로 이동하여 거북이와 수천마리의 잭 피쉬, 니모, 트럼프 피쉬, 바라쿠다 등 신기한 물고기를 그리고 수중 속 절벽다이빙, 조류다이빙 등등 너무 신났다. 현재는 오픈워터 동기와 함께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L\_scuba club 동호회를 결성 다이빙 정보를 공유하거나 스쿠버교육을 진행하였고 사이판을 시작으로 정기 다이빙 투어를 다니게 되었다.

사이판은 세계 10대 다이빙 포인트 중 한 곳으로 웅장한 지형과 음료 포카리 스웨트를 연상케 하는 에메랄드빛 바닷물

은 감탄이 절로 나오게 하였다. 다음으로는 오키나와로 다이빙을 다녀왔다. 오키나와는 사이판의 미니어처 같은 느낌이었으며 사이판의 웅장함 보다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다이빙 투어를 떠나는 나라마다 모두 어느 한 곳 같은 곳이 없으며 어느 한 곳 신기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경이롭고 아름다운 곳들을 사진으로 모두 담을 수 없어 아쉬울 뿐이다. 다음으로 가고 싶은 다이빙 포인트는 만타가오리가 무리지어 춤추는 향연을 볼 수 있는 곳 ‘신들의 정원’ 팔라우를 계획하고 있다. 누구나 여행을 떠나기 전 계획을 세울 때의 설렘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삶의 무한긍정 에너지를 준다.

이것 또한 여행과 스포츠를 한 번에 즐기는 매력 중 하나이다. 수중세계는 TV다큐멘터리에서만 보던 곳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VR체험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하고 신비롭다. E&C



## 중앙관제실 김동영 기사

본관 지하1층 중앙관제실을 들어서면 다양한 모니터가 즐비하고 갖가지 프로그램이 화면에 돌아가고 있다. 여기서 회사건물의 기계, 전기, 방재, 공조냉동 설비를 메인 컴퓨터로 감시하고 제어한다.



마음씨 푸근하게 보이는 김동영 기사(영광종합개발 중앙관제실)를 만났다. 중앙관제실 관리는 3명씩 7조가 이 번갈아가며 교대한다. 하시는 업무를 물었더니 대기전력, 역률개선, 스마트제어 등의 관리가 전기용어와 함께 튀어나온다. 역률[코사인 세타(cos θ) 값] 같은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자. 회의실 한 측면에 선풍기, 온열기, 난방기가 바닥에 가득 놓여있다. 화재나 전기누설 위험 품목으로 보관 중이다. “직원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일이 생겨도 연락이 옵니다. 사무실 전기조명도 모두 콘트를 하지요. 전기제어는 안전을 위해 2회선으로 설비, 운영합니다. 전력은 인근 농소변전소에서 끌어옵니다.”

근무하는 어려운 점이 없는지 여쭙었다. “7일 중 1일은 24시간 교대근무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장소에 갇혀 지내다

보니 취침이 힘듭니다.” 수인(囚人)처럼 동일 장소에서 반복되는 업무를 하다보면 화면상에 표시되는 신호와 값들이 매번 비슷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점에서 예기치 않은 답변을 들었다. “24시간 화면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늘 같은 그림만 보게 되는 셈인데요. 똑같은 화면만 보기 때문에 반대로 조금이라도 변동되는 이상한 점이 더욱 뚜렷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 TV에서 고속 회전하는 섬유천의 헤어짐 미세 불량을 직감적으로 찾아내는 달인을 본 적이 있다. 그이의 설명과 일치한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함께 근무하는 분들과 고된 일을 하시는데 사무실 분위기를 물었다. “아무래도 특정 장소에서 관제 업무를 하다 보니 여기서는 서로가 형과 동생 같은 관계로 발전해요.” 상호 믿고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동료보다 한 단계 상승한 돈독한 사이로 바뀌는 걸로 알아들었다.

김동영 기사에게 소망을 질문하였더니, 현재 정부의 정책 일환으로 정규직추진이 논의되고 있고 자회사 설립이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기를. 김 기사의 미래 계획은 올해 안에 전기기능장 자격증 따기, 최종목표로서 전기기술사 자격 획득이다. 본래 섬유화공 전공이지만 전기에 매력을 느껴 학교에서 송배전 공부를 더 하려는 계획도 고려 중이다.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는 중앙관제실 내에 볼링소모임이 있어 직원들과 함께



무언가 확 풀고 싶을 때 볼링장을 즐겨 찾는다. 빛이 입자와 파동이듯 전기력과 자기력도 같은 현상이다. 미소 전자입자는 작은 팽이처럼 스핀현상으로 90도 각도 축으로 회전한다. 불에 스피를 가득 먹여 스트라이크를 잡으시기 바란다.



알고 보니 김 기사는 김천 토박이다. 어제 인터뷰 약속을 잡으려다 귀여운 아들(다섯살)을 돌보아야 한다고 오늘로 날짜를 바꾸었다. 부인은 김천제일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한다. 무려 8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고. 전기 분야는 설비용량 규모에 따라 ‘선임’ 자격이 자격 레벨에 따라 주어진다. 300KVA는 빌딩 정도의 용량이라고 한다. 언젠가 김 기사가 무한대의 전기 설비용량 책임자로 선임되시기 빌어본다.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회로기판에 그의 꿈과 소망을 입력해 본다. **E&C**



게임 후 한 컷



## 스피디한 경기와 활발한 활동의 한기농구단

대략 7~8년 전 이맘때 즈음, 용인 신갈초등학교 체육관 에는 장정 셋이서 거친 숨소리를 뿜으며 나름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비록 실내였으나 겨울이라 입에선 입김이 나오고, 외투를 벗으면 냉기에 몸을 움크릴 수 밖에 없었던 그 당시, 체육관의 오래된 마룻바닥은 곳곳이 밟을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를 내는 낡은 코트였으며, 언제 부서질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기 농구동호회 회원이었던 그들은 끝을 알 수 없는 열정으로 “무한 1 on 1” 농구시합으로 겨울밤을 달구었다. 이러한 농구부의 열정들로 쌓여진 이야깃거리들은 지금도 회식 때마다 나오는 단골소재들로 ‘열정’이 없었다면 생길 수 없는 이야기들이다.

### 농구의 매력은 무엇일까.

격렬한 몸싸움과 스피디한 경기템포 사이에서 승부를 위해 게임에 빠져들다 보면 어느새 몸은 흠뻑 땀으로 젖고 턱에서는 끊임없이 땀방울이 떨어진다. 경기 참여자들의 집중력이 극에 달한 순간의 기가 막힌 패스, 통쾌한 블록, 짜릿한 버저비터<sup>2</sup>, 치열한 리바운드 경합 후 볼 쟁취, 상대 수비수를 농락하는 현란한 드리블 등은 많은 농구인들을 매료시킨다. 뿐만 아니라 승부처에서 팀수비로 상대 공격을 억제한 후의 성취감, 연습했던 팀 전술로 득점에 성공했을 때 개개인의 역할 수행에 대한 만족감은 팀 스포츠의 매력을 한껏 느끼게 한다.

1995년 회사가 삼성동에서 용인 구성으로 이전 후, 당시 젊었던 주병찬 사원 외 직원들과 인근 회사 주차장(현재 구성 삼성래미안)에서 즐기던 농구모임을 1996년 2월 회사 동아리로 등록하여 시작한 것이 한기 농구부의 시초로, 작년에도 4명의 신입회원을 영입하며 현재까지 25년째 그 명맥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장이 190에 달하는



2009년 4월 용인 구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울곡중 체육관에서 2018년 새 유니폼 착용하고



울곡중 체육관에서 2018년 새 유니폼 착용하고

인사이드 자원과 건장한 피지컬 및 압도적인 스피드를 갖춘 젊은 피의 가세로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팀 스쿼드<sup>3</sup>를 갖추게 되었다.

회사의 김천 이전이 여러 어려움도 주었으나, 회사 전용 야외코트가 마련되고 체육관 대관계약에 있어서는 수도권의 여러 단체와의 대관 경쟁에서 보다 한결 여유가 생긴 장점도 있었다. 현재 한기 농구단은 봄, 여름, 가을에는 매주 회사 야외코트에서 자체 활동을 갖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1년 내내 울곡중학교 체육관에서 타 팀과 공동대관을 통해 활발한 교류전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이러한 활발한 활동은 회원들의 실력 향상과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농구단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공동대관의 경우, 김천시청 팀(Central Team), 울곡동 팀(Team Yul-Dong), 도로공사 농구팀(Hi~Pass Team) 등 과 한기 농구단이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체육관에서 교류 시합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타 기관과의 친목 교류와 더불어 수준 높은 팀들과 경기를 통해 소중한 경기 경험의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그 동안 활동이 뜸했던 OB 멤버들과 “OB vs YB” 이벤트 게임 및 “3 on 3 대회<sup>4</sup>” 등 동호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김천에서 주최

하는 농구 동호회 대회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기 농구부는 농구에 관심있는 직원들에게 항상 문이 열려 있으므로, 언제든지 관심 있는 분들은 농구부 총무(홍순주 사원)에게 연락한다면 멋진 목소리를 곁들인 친절함 설명으로 안내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존 회원들의 열렬한 환영으로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미리 마음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비록 조금 부족하더라도 ‘열정’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함께 노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멋지고 의미 있지 않은가? Hey guys, Will you join us? 

1. 일대일 농구시합. 코트의 절반만 사용하는 방식
2. (Buzzer beater) 농구에서 경기 종료를 알리는 버저 소리와 함께 성공된 골. 버저가 울리는 순간 공이 솟하는 선수의 손을 떠나 있어야 유효한 슈트로 인정된다.
3. (Squad) 선수단.
4. 3대3 농구게임. 코트의 절반만 사용하는 농구방식으로 반 코트 게임이라고도 일컫는다



# 고난한 역사의 숨결이 담긴 순례길 남한산성 성곽 걷기



지구촌의 코로나 유행으로 발목이 잡힌 봄이다.

그러나 사람의 세상과는 무관하게 꽃들은 피어났고 어느새 녹음이 짙어간다.

마음은 전국의 꽃길과 숲을 누비고 싶지만, 행보가 조심스럽다. 이즈음 봄비지 않는 길들을 거닐어 보는 것은 어떨까? 멀지 않은 곳, 집 주변이나 둘레길, 한산한 유적지 정도면 좋을 듯싶다.

오월의 햇살과 온기를 맞으며 걷기 좋은 공간 남한산성 성곽길을 소개해 본다.

01 성곽을 따라 호젓하고 아름다운 길들이 잘 꾸며져 있다 02 수어장대. 서장대로도 불리며 적을 감시하기 위해 세워진 2층 목조건물이다 03 성은 4개의 문과 8개의 암문을 통해 드나들 수 있다 04 연주봉 응성. 길게 치를 돌려 적병과 대치하게 했다. 밑으로는 암문을 만들어 비밀리에 드나들 수 있게 하였다 05 높은 성곽 곳곳이 훌륭한 조망대다

## 서울을 지키던 외곽요새, 남한산성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약 24km,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해발 460m 내외의 산자락에 둘러쳐진 남한산성은 서울을 지키는 외곽의 4대 방어막 중 하나였다. 이 요새들은 북쪽의 개성, 남쪽의 수원, 서쪽의 강화, 동쪽의 광주에 각각 설치되었으며 남한산성은 동쪽 광주 땅에 자리하고 있다. 천혜의 요새인 남한산성은 “백제 온조왕 13년에 산성을 쌓고 남한산성이라고 부른 것이 처음”이라고, <고려사>와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신라 문무왕 때, 조선 선조 때, 광해군 때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개



06 완만한 곡선을 따라 성곽길이 이어진다 07 응성너머로 아득히 펼쳐지는 남한산성 성곽 08 성의 안과 밖에 길들이 나있다. 외곽길을 걷다보면 산성의 견고함이 느껴진다 09 성곽 너머로 보이는 서울과 한강풍경



축되었다. 그 후 후금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인조시대부터 순조시대까지 대대적으로 개수한 것이 오늘날의 남한산성이다. 석축으로 쌓은 남한산성은 그 둘레가 약 8km이며 면적은 2.3km<sup>2</sup>이다.

동서남북으로 각각 4개의 문과 문루, 8개의 암문을 내었으며 동서남북으로 4곳의 장대가 설치되었다. 성안에는 수어청을 두고 관아와 창고, 행궁을 건립했다. 또 80개의 우물, 45개의 샘을 만들고 광주읍의 행정처도 산성 안으로 옮겼다. 우리나라의 산성들 가운데서도 가장 시설이 잘 완비된 곳으로 꼽힌다. 남한산성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적57호다. 2014년, 우리나라에서 열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병자년, 그 해 겨울의 치욕스런 역사**

인조14년(1636), 후금에 의한 정묘호란이 지나간지 불과 열 해도 안 되어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국호를 청이라 바꾼 청태종은 그해 12월,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침공해왔다. 조정은 피난길에 나섰고 원래 강화도로 피하려던 왕의 행차는 다급히 남한산성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미 강화로 가는 길이 막혀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다. 남한산성 안에 비축된 양식은 1만 4천이 넘는 군병이 50일밖에 지탱할 수 없는 분량이었다. 게다가 흑한이 겹쳐 오래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성 밖의 청군은 고요했고 성안의 조정은 처절했다. 성안에서는 청나라와의 화친을 주장하는 주화파와, 침략을 죽음으로 막아내자는 척화파의 논쟁이 벌어졌으나 대세는 이미 주화파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인조 15년(1637) 1월30일. 성에 들어온지 57일 만에 임금은 결국 송파의 삼전도까지 내려가 땅에 아홉 번 머리를 찧고 항복하고 만다.

한편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말고도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1836년부터 1866년 사이에 350명이 넘는 천주교도가 남한산성 동문 언저리에 있던 형터에서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남한산성은 서울의 새남터, 절두산 순교지와 더불어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의 대표적 순교지로 꼽힌다.

**남한산성 성곽 걷기, 그리고 성남시 둘레길**

서울 외곽에서 서울을 바라보기 가장 좋은 조망을 남한산성은 지니고 있다. 남한산성을 걷는 길은 일반적으로 산성로타리 남문주차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온전히 7.7km의 성곽을 다 걸자면 대략 3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 남문이나 북문으로 올라 한방향으로 걸으면 된다. 오후에 이 길을 걷는다면 서문 쪽에서 노을을 맞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서문에서 북문 쪽으로 200m 정도 오르면 성곽 밑에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다. 가까이로는 송파 일원과 잠실, 하남 일대가 훤히 내려다보이는데, 맑은 날이면 한강과 멀리 남산의 모습까지 시원스레 펼쳐진다. 야경이 특히 볼만해서 어둑해질 무렵이면 사진 찍는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다. 성곽을 전부 걷기에 부담스럽다면, 북문에서 서문, 남



문 순이나 남문으로 올라 서문, 북문 순으로 걸으면 된다. 숲은 정갈하고, 성의 안과 밖 모두 길이 잘 나있다. 종종 성남시 등산연합회의 주관으로 남한산성과 성남시 둘레길 걷기여행 행사가 열린다. 성곽 뿐 아니라 성남시 산성역으로부터 논골, 양지공원,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거쳐 남문, 은행동 유원지에 오르는 코스와 봉곡사 주차장에서 영장산, 독쟁이골, 북정동, 산성역으로 이어지는 두개의 코스가 개발되었다. 역사의 숨결이 담겨있는 남한산성과 주변의 마을들, 성남의 모습을 고루 만나볼 수 있는 문화의 길이 되길 기대해본다.

(문의 성남시 등산연합회/031-755-2577)

**남한산성 코스 안내**

- 1코스 산성로타리-북문-서문-수어장대-영춘정-남문-산성로타리 (3.8km)
- 2코스 산성로타리-영월정-송열전-수어장대-서문-국청사-산성로타리 (2.9km)
- 3코스 남한산성역사관-현절사-별봉-장경사-망월사-지수당-남한산성역사관(5.7km)
- 4코스 산성로타리-남문-남장대터-동문-지수당-개원사-산성로타리(3.8km)
- 5코스 남한산성역사관-동문-동장대터-북문-서문-수어장대-영춘정-남문-동문(7.7km)

# 내 마음에 풍경 : 봄날의 보쌈

금송마을 입구 '무위사(無爲寺) 가는 길' 표지판 보고 접어들면 '내 마음에 풍경'에 바로 닿는다. 합지박 돌 틀 안에 개구리밥이 송송 밥풀 똥똥 떠오른 모양 흥건히 자라고 있다. 한 곁에는 열두 명이 앉아도 넉넉할 큼직한 돌 탁자도 보인다. 2,500평 규모의 넓은 정원 잔디에는 수석, 방갈로가 산재해 있다. 풍경 사이사이 연분홍 벚꽃나무와 흔히 배꽃과 구분하기 힘들다는 자두나무 흰 꽃이 피었다. "봄 처녀 제 오시네. 새 풀 옷을 입으셨네."를 흥얼거릴 만큼 봄기운 가득한 날이었다.



나무대문 위 오색빛 전각체로 '복혜구족(福慧具足) 쥐띠해 입춘대길(立春大吉)'이란 도안이 눈길을 잡는다. 특히 '鼠(서)' 전각은 이게 쥐의 그림인지 한자인지 모를 묘한 디자인 감각을 발휘한다. 누구 작품인지 자세히 보니 '수안'이란 낙인이 찍혔다.

내부로 들어서면 인테리어를 잘 갖춘 카페로 보인다. 주인장 말을 빌면 처음 전통 찻집, 분위기 좋은 카페로 시작하였으나 손님들이 뭔가 허전한듯하여 식사를 곁들이다보니 겸용이 되어 버렸다고, 그때 선택한 요리가 한방보쌈 한정식이다. 오히려 이것으로 더 유명해졌다니. 식당 옆 낡은 건물 '족발 및 보쌈 식가공공장'도 주인이 이전에 하셨다니 정녕 내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육고기 잡내 제거는 예사가 아니다. 물에 담가 피를 빼기도 하고, 압력솥에 찌기도 하고, 후추나 허브도 넣고, 이게 실패하면 무두질 역한내가 나서 예민한 사람은 수육을 입안에 넣지도 못한다. 어디 산(産) 돼지고기를 사용하는지 물었더니 예상 밖 설명을 들었다.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사용해 보았지만 국내산은 역한 고기가 나올 비율이 들쭉날쭉 고르지 않고 수입산은 평균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와 주로 네덜란드 돼지고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집만의 비법으로 감초, 계피, 생강, 양파, 대추, 밤, 대두(메주용 흰콩)가 출격한다. 한약재를 아낌없이 투입하여 돼지고기의 느끼한 맛을 잡는다. 한방약초 내음이 가득한 소이연이다.



한정식에 나오는 반찬 가지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또 계절마다 내어놓는 종류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도 어렵다. 대체로 정갈하고 맛깔스럽다. 무국과 밥 한 공기, 도라지 무침, 마늘쫑 멸치 볶음, 으깬 두부 시금치 무침, 숙주나물이 등장한다. 손님이 가장 선호하는 반찬 한 가지를 여쭙었더니 단연 튀김두부라고 뽑아주신다. 두부를 조금 굵게 썰어 표면을 노릇 노릇 프라이팬에 적당히 익혔다. 거기에 채소와 양념장을 살짝 얹어 고소한 맛이 난다. 가정식에 가까운 콘셉트에서 튀김두부를 빼다면 서러운 일이다. 수육보쌈의 주력군이 있기에 밥의 정량을 적게 하였다. 반찬은 깊고 깔끔한 맛이다.

'내 마음에 풍경'에서 손님들 인상에 남는 이미지는 비트 (beet) 차, 우영 차, 커피가 예쁜 다기에 담겨 나오는 후식이다. 비트차는 얼은 선홍빛으로 물들어 창문에서 투과하는 햇빛에 반사되면 영롱한 빛이 난다. 비트는 예쁜 색으로 마시는 차이기에 맛과 향기는 다소 심심하다. 그 대신 갈색빛의 무말랭이차는 독특한 맛과 향기를 자아낸다. 아무래도 수육보쌈의 지방질 기름기는 세 가지 차 중 하나로 입안을 씻어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궁합 상 걸맞다. 내 마음에 풍경은 14년이란 세월을 지켜낸 김천 토박이 맛집 중 하나이다. 단골손님이 다른 손님을 한명 씩 데리고 들어와 입소문으로 알려진 듯 보인다. 넓은 주차 공간, 초록의 야외정원, 꽃구경과 산책이란 삼박자로 직원 중 단골이 많다.

'내 마음에 풍경' 의미는 무엇일까? 카페 한 복판 벽면에 금동으로 새겨진 '佛心'에 있을까, 그런 불심검문은 하고 싶지 않다. 다만 창가의 나지막한 틈사이로 낮게 줄지어 양광의 햇살을 받는 다육식물의 행렬, 육자병풍 크기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가득한 진열대에는 양증맞은 다기류, 모과열매, 녹이 잔뜩 쓴 철제 다리미 한 쌍, 여기저기 하얀 천에 새겨진 한용운과 윤동주의 시가 널려 있다.

윤동주의 '달같이' 시 한편 읽어보았다. "연륜이 자라듯이 달이 자라는 고요한 밤에 달같이 외로운 사랑이 가슴하나 빼근히 연륜처럼 피어나간다." 선시(禪詩) 같은 분위기이다.

내 마음의 풍경은 여름 한철 바깥에는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면서 창문가에 기대어 배호의 저음에서 나오는 바이브레이션 옛 가요 한 소절을 들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신다면 한결 운치가 있을 것 같다.

카페를 둘러보면 여럿 한자사구가 보인다. 그 뜻은 '만족함이 바로 행복', '만족을 얹어 덕의 바탕' 그런 의미들이다. 고요히 자신의 마음 풍경을 바라보면서 평안해지기 바란다는 주인의 마음이라 짐작해 본다. 복혜구족(福慧具足), 복과 지혜는 족함을 아는 마음에서 싹튼다. 이것이 무원(無願)의 경지, 더 이상 원하는 바가 없기에 자재(自在)라는 풍경 안을 잠시 들여다보았다. **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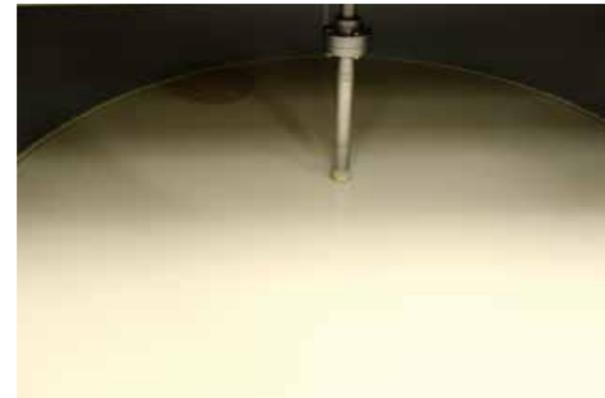


**참고** ▶ 회사에서 도시화도로를 타고 감천면 방향, 주소는 김천시 감천면 금송4길 34-9이다.  
▶ 예약은 1시간 전 Tel)054-436-5700

# 경상북도 상주의 전통민속주 은자골 탁배기



전국 막걸리 지도라는 것이 있다. 팔도막걸리 지도라고도 불리는데 전국의 유명하다는 막걸리를 지도에 그려 놓은 것이다. 여기서 경상도 그것도 북부지역은 행하다. 전통적으로 경북은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소주문화가 발달하였던 반면 일반 서민대중의 술인 막걸리에 대해서는 인식하기 그지없는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척박한 지역 막걸리 문화 속에서도 2019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38(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선정)에 선정되고 찾아가는 우리술 24(막걸리학교 선정)에도 선정된 보기 드문 알코올 도수 5%의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막걸리가 은자골 탁배기다.



2007년도부터 정부가 주관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술품평회인 우리술 품평회에서 2016년도 생막걸리부문 대상을 받을 정도로 명성이 있는 은자골 탁배기(대표 임주원)는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은척면 은척양조장(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찾아가는 양조장)에서 만들어진다. 은척은 은으로 된 자를 말한다. 불로장생의 상징인 은척이 곧 은자인데 덕분에 너무 인구가 늘어 은을 묻어 버렸다는 전설의 은자산은 높이 155M로 1.6KM 떨어져 있다.

1963년부터 공식적인 허가를 받긴 했지만 일제강점기인 1939년부터 3대째 가업으로 이어 오고 있다는 임대표는 탁배기의 맛은 맑은 물(지하수를 사용한다), 삼백의 고장 상주쌀(국산 일품벼), 우량한 효모, 직접 빻은 우리밀 누룩(상주국자), 청결한 제성용기,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1억이상 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서 나온다고 한다. 특히 다른 양조장들보다 청결함을 자랑한다. 양조장을 방문하면 주인들 중에서는 자랑스럽게 “우리 양조장은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천장의 거미줄 벽면의 곰팡이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우리 양조장의 술맛을 빚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 근거없는 얘기란다. 탁배기는 현재 임주원 대표가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아서 만들고 있다. 양조장 주인이라면 애주가를 떠올리겠지만 정작 임대표는 독실한 크리스찬일뿐 아니라 넓은 양조장 부지 내에 은척교회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양조장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막걸리가 단순한 술이 아닌 곡주라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보통 우리가 마시는 막걸리 도수는 6도이지만 탁배기는 5도인 저온숙성 저알콜막걸리라서 처음 맛을 보더라도 담백하다는 느낌이다. 소개 책자에는 “탁배기의 특징을 음용 후 머리가 맑고 뒤끝이 깨끗한 술이며 밀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특유의 텁텁함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마시기 편안하고 입안에서 적당히 무게감을 주면서 음식과 매칭도 훌륭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막걸리학교에서 제작한 ‘찾아가는 우리술’에서는 생두부 김치와 잘 맞는다고 추천하고 있다.

탁배기 한병이 만들어지기까지 20일이 넘게 걸린다. 누룩을 빻는 데만 보름 고두밥을 찌고 발효까지 일주일이 걸리니 상당히 정성이 깃든 막걸리인 셈이다. 저알콜 막걸리이기 때문에 변질이 쉬워서 유통기간이 20일로 다른 막걸리보다 짧다.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막걸리가 일반식 백국 누룩을 사용하는데 비해 탁배기는 효모와 효소가 풍부한 전통누룩으로 빻어서 상쾌하고 적당한 단맛과 함께 저알콜 막걸리로서 알싸한 쓴맛이 깔끔한 뒷맛으로 남는 것이 큰 특징이다. 탁배기 용량은 750ml이고 도수는 5%다.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소비자판매가격은 1,500원이다. 가을에는 한정판으로 굿감막걸리도 제조하여 판매한다고 한다. 주로 구미지역 공단을 중심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나 김천혁신도시에도 신남라인프라자에 직영점(은자골 생탁배기 전문점 주몽 054-432-0202)이 오픈된다고 한다고 하니 시음하기에 어렵지 않겠다.

탁배기를 제조하는 은척양조장 인근에는 성주봉 자연휴양림과 성주한방산업단지, 상주 동학교당이 있어서 지역 관광도 겸할 수 있다. 임대표는 우리회사 직원들이 방문한다면 양조장 부지 내에 전통음식과 탁배기가 있는 장소도 제공해 주겠다고 한다.(은척양조장 054-541-6409) **E&C**





김재석 대표



## 에스디이엔지

에스디이엔지는 2007년에 설립된 토목구조설계(Civil Structure Engineering) 전문회사로 박사 3명, 구조기술사 5명 등 기술자 33명을 포함한 총 36명의 직원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활동주체(토목구조, 토질지질, 도로공항, 항만해안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한국전력기술 협력업체, 한국수력원자력 유자격공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내진해석분야 성능검증기관 인증을 획득하였다.

주요 사업은 원자력분야 및 일반 산업시설분야의 토목구조물 설계를 수행한다. 원자력분야 사업은 우리회사와 2011년 원자력 토목구조 분야에서 협력업체로 등록된 이래로 BNPP 대구경 배관지지대 설계 및 현장 PSR지원 업무, 신고리 5,6호기 용역 외 다수의 가동원전 사업을 수행중이다.

그 밖에 수출용 신형 연구용원자로 및 부대시설 종합설계용역 건축/구조/토목분야 설계용역, SMART 건설 전 BOP 설계용역, 한빛 5,6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종합설계용역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이후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내진설계 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반구조물 상호작용(SS) 해석 전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내진설계분야의 사업영역 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 안전등급 설비에 대한 내진성능 검증기관(내진해석 분야)으로, 2019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등록하였으며, 원자력 시설에 대한 내진여유도 평가에 참여하기 위한 미국전력연구원(EPRI)에서 시행하는 SQUG(Seismic Qualification Utility Group) 교육을 3인이 이수하였다. 한편, 발전시설의 내진성능 평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력, 화력 발전소 등 일반산업시설에 대한 내

진성능 평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일반산업시설 분야로는 항만 및 플랜트 구조물의 안벽, 방파제, 유류전용부두(Jetty) 및 환경 플랜트 설비(폐기물 및 수처리시설), 발전설비(수력 및 조력), 송배전 설비(전기공급시설 및 전력구) 등의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수행실적으로는 국내 유일의 조력발전소이며, 세계 최대규모인 전력용량 254MW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경인 아라 뱃길사업의 관문인 서해갑문 설계에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다.



즐거운 회사생활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임직원 개인의 발전이 회사의 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새로운 기술의 향상을 통한 잠재적 기회(Potential Opportunity through Improving New Technology)를 선점하자는 의미로 에스디이엔지가 함께 바라보는 한 곳, "POINT of SD"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의 확대를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모든 에스디인이 원하는 POINT로 함께 발전함으로써 더욱 창조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E&C

고전1

관자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옮김 | 값 38,000원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민중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먼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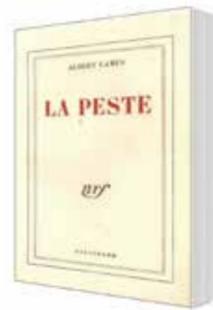
『관자』는 ‘관포지교’로 유명한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명제상 관중이 지은 경서. 공자가 일찍이 관중을 평하길 천하를 바로잡아 만민에게 문명의 혜택을

준 인물이었다고 하였다. 창고가 가득 차야 백성이 ‘예의’와 ‘염치’를 안다는 관중의 주장은 도덕과 이상에 대해 논하는 다른 동양 고전과 달리 현실적인 관점을 제시해준다. 관중이 제시한 비전이었던 국가경영의 기본 철학은 ‘부국강병!’ 다양한 조직을 경영하는 현대의 CEO들에게 어떻게 조직과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해안을 제시한다.

고전2

페스트

알베르 까뮈 지음



“페스트 앞에서 인간은 무너져야만 하는가”

무서운 전염병이 휩쓴 폐쇄된 도시. 그리고 비극적 현실 속에서 의연히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재앙에 대처하여 서로 다른 태도를 드러낸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절망과 맞서는 것은 결국 행복에 대한 의지이며, 잔혹한 현실과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진정한 반항임을 이야기 한다. 죽음이라는 엄혹한 조건 앞에서도 억누를 수 없는 희망의 의지를 표현한 희대의 고전

음반

KBS클래식 FM 개국 40주년 기념음반 <마흔 클래식에 빠지다>

2019년 4월 12일 발매 | Universal Decca Record | 33,000원



1979년 4월 2일 개국한 ‘KBS클래식FM’의 40주년을 기념하여 애청자들에게 전하는 음악선물. 매 방송마다 마음을 다해 고르는PD, 목소리에 온기를 담아 청취자를 위로하는 DJ, 최고의 음악을 들려주

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연주자 등 ‘KBS클래식FM’과 인연을 맺은 40명의 추천으로 구성된 컴필레이션 앨범. 많은 이들의 따뜻한 추천사와 함께 바흐, 모차르트, 말러, 쇼스타코비치 그리고 교향악부터 실내악까지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영화

컨테이션

2011년 개봉 | 매트 데이먼, 케이트 윈슬렛 출연 | 왓차 플레이 등 상영중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누구도 만나지 마라!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베스는 고열에 시달리다 발작을 일으키며 죽는다. 갑작스레 아내를 떠나 보내게 된 남편 미치는 그 원인을 알기도 전에 그의 아들마저 죽고 만다. 전세계로 확산된 바이러스로 인해

인류사회는 마비되고, 질병의 확산 방지와 치료제 개발을 위해 의료인들은 고군분투한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와 전문가들의 철저한 고증을 통해 신종전염병에 유행에 대한 인간의 공포와 사회적 혼란을 매우 실감나게 현실적으로 그려냈다.

소설

정시 퇴근하겠습니다

아케노 가에루코 지음 | 값 14,800



밀레니얼 세대의 워라벨 사수기! 공짜 야근 없다!

정시 퇴근 사수하라!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주인공 히가시야마 유이. 야근을 당연시하는 사내 분위기에 도량곳 않고 저녁 6시만 되면 엉덩이를 털고 일어난다. 퇴근 후

기다리는 것은 단골집에서 들이키는 맥주 한잔. 하지만 그녀의 정시 퇴근을 향한 길은 고난의 연속이다. 터무니없는 예산과 일정으로 일을 밀어 붙이는 무능력한 상사와 연차 사용까지 간섭하는 동료, 임원이 되기 위해 출산휴가까지 반납한 슈퍼워킹 맘까지 사방이 적이고 매일이 점입가경. 그녀는 정시 퇴근을 사수할 수 있을까?

자기계발

80년대 김팀장과 90년생 이대리가 웃으며 일하는 법

김범준 박진수(자문) 지음 | 한빛비즈 | 값 13,500원



서로의 적정거리를 찾는 관계의 과학 “팀장님 지금 선 넘으셨습니다”

누구의 부하도 되지 않으려는 90년생 대리. 리더로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80년생 김 팀장. 80년생 김 팀장은 괴롭다. 위로부터의 실적 압박은 거세지기만 하고, 팀원들과 소통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해도 ‘왜 그래야 하

죠?’라고 따져 묻는 90년생 이 대리를 설득하기조차 버겁다. 이 책은 김 팀장이 리더로 인정 받으며 이 대리와 함께 제대로 일하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적정거리를 파악’, ‘적절한 소통도구와 방식의 선정’, ‘통보가 아닌 논의’, ‘교감할 수 있는 상대방 언어 사용’이 그것이다.

드라마

블랙 미러

Channel 4 제작 | 넷플릭스 등 방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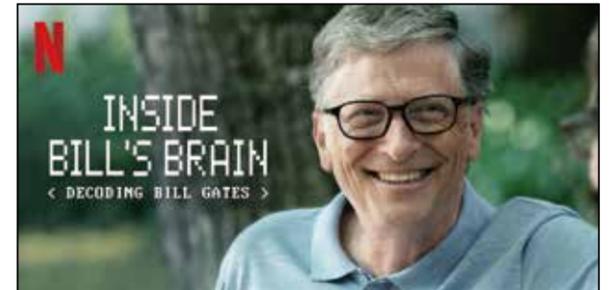
미디어와 정보기술의 발달과 윤리!

검은 화면의 전원이 꺼진 텔레비전 브라운관, 스마트폰의 액정을 뜻하는 블랙미러. 우리의 얼굴을 비추고 우리 내면을 들여다 본다. 눈부시게 발전한 첨단 기술. 하지만 인간의 어두운 본능이 그 기술을 이용하면서, 기이한 악몽이 시작된다. ‘디지털 시대의 <환상특급>이라 불리는 SF시리즈. 디지털 시대의 첨단 기술들과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들이 옴니버스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해서 볼지는 시청자의 선택.

다큐

인사이드 빌 게이츠

2019 | 넷플릭스 등 방영 중



저는 제 두뇌가 멈추는게 가장 두렵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립자 빌 게이츠. 그가 속내를 털어 놓는다. 유복했던 어린시절, 뛰어난 사업 역량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공개한다. 누구나 궁금한 빌 게이츠의 머릿 속. 이 억만장자는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갈까. 그에게 영감을 준 사람들, 그가 추구하는 대담한 목표를 만나본다.

## 선견지명(foresight)과 후견지명(hindsight)

- 선견지명 : 앞날을 예측하는 지혜 / - 후견지명 : 사고의 발생으로 아는 과거 지식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경위와 원인에 관한 방송보도와 신문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왜 저렇게 판단하고 조치하여 사고의 피해를 키웠을까? 여기서 터널 안에 있었던 사람과 터널 바깥에 있었던 사람 간의 관점 차이가 생겨난다. 터널은 ‘사건 또는 사고’의 은유이다. 먼저 터널 안에 있었던 사람은 어둡고 캄캄한, 굽어지고 휘어진 공간을 더듬어 가며 걸어갔다. 터널 바깥에 있는 사람은 터널을 투시하듯 바라보면서 사건의 진행 과정과 판단, 그 결과를 모두 알 수 있다.

- 사고는 과거에 발생하였다.
- 조사는 현재에 이루어졌다.

- 과거의 원인과 상황이 현재의 판단에 의해 왜곡 될 수 있다.

터널 바깥의 사람이 가지는 관점을 사후확정 편견이라고도 부른다. 모든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사고의 발생, 조치, 결과까지 현재시점에서 훤히 파악하는 위치에 있다. 사고대처의 실패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가진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에 대한 그릇된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역지사지가 잘 되지 않는다. 사고가 끝난 이후의 후견지명으로 보면 본질에서 멀어지기도 한다. 선견지명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거 시점에서 그런 상황에 봉착한 사람들이 어떤 판단에서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선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면 다양한 각도에서 상황을 다르게 보고 예방할 단서를 이끌어 낸다.

- 터널 안으로 들어가 본다.
- 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 이후에 실제적 대응방법을 찾아낸다.

후견지명은 누구든지 손쉽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과거 사건의 시작-전개-결말의 전 과정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를 예방하는 선견지명은 이끌어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과거의 사실을 빠르게 결론 내리고 눈과 귀를 닫고 있기 때문이다. 선견지명은 먼저 역지사지가 되어 본 후 미래를 그려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 독자와의 수다 사보 뒷풀이

하 수상쩍은 시절인데도 봄꽃들은 인간사와 무관한 듯 일제히 피어올랐습니다. 다들 가택연금 상태에서 봄을 지켜보았을 터인데 어느 해와 다른 느낌을 자아냅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난리인데 실물경제가 받는 멍은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래저래 사보제작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획이 연기되고 여기저기 뼈격겨려 변동하기도 했습니다. 30년 전 미래학자들이 거대도시의 출현, 빈번한 시민이동으로 바이러스가 출현하면 확산과 전염이 크고 빠르다고 예측했습니다. 나라마다 상호의존도가 심해 국지성을 넘어 지구화된다고요. 칼릴 지브란이 지은 ‘예언자’가 생각납니다. 지브란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촘촘히 붙어살기에 들녘의 꽃처럼 조금 떨어진 채 흩어져 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서 있지 마십시오(Stand together yet not too near together).” 요즘의 사회적 거리두기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데 어떤 세상이 올까요. 하여간 계절과 꽃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 <한 줄 독자의견>

- ‘나의 취미’ 칼럼을 보며 다양한 직원 활동을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생개발팀 김준성 사원)
- 테마다 2면으로 구성되어 가독성이 좋아진 느낌입니다. 볼거리가 많네요. (혁신성장실 정상인 부장)
- 다른 잡지와 달리 저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사보는 항상 흥미롭습니다. 사보를 한 번 더 찾아 읽는 원동력입니다. (기계배관기술실 장강재 사원)
- 사보가 읽을거리도 많아지고 흥미로운 글이 늘어나 좋네요. (한국원자력연구소 이환호)

## 돌발퀴즈

3월 0000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QMS 인증감사 수검을 통하여 품질인증서를 우리 회사에 발행하였다. 이 나라는 NATO수송기를 보내어 코로나 방역방호 물품을 2차레 긴급수입하기도 했다. 사보 5월호에서 맛집 탐방은 ‘내 마음의 00’에서 보쌈정식, 우리술은 00 은자골 탁배기를 취재하였다.

### 응모방법

‘0’에 들어가는 총8자의 단어를 **2020년 5월20일~ 5월27일까지** 정답으로 memolee7@kepco-enc.com 메일 주시면 5인을 추첨하여 도서문화상품권 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

- 돌발퀴즈 : 김동하 (정보보안실 차장)  
박재영 (전기계측기술실 사원)  
이환호 (KAERI 직원)
- 이달의 한컷! : 신영미 (기계배관기술실 대리)  
구소정 (품질경영팀 사원), 김흥기 (전기계측기술실 사원)  
전유화 (토목건축기술실 사원), 박라현 (보안기획팀 사원)

## 원고모집

사보기사의 소재, 아이디어, 디자인, 그리고 잘못 기재된 내용, 오타자 등의 의견을 편집팀(memolee7@kepco-enc.com)에 알려주세요. 독서, 영화, 여행, 수필, 그림 등 사보에 실을 원고를 모집합니다. 독자원과 투고 시 가장 우선순위로 기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취미, 사회 봉사활동, 특기, 자격 등을 주변 분들을 추천해 주세요. ※독자평, 기사추천을 5월 27일까지 주신 분을 선정하여 5인에게 상품권을(3만원) 제공해 드립니다.